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상관성*

- 남장결연담을 중심으로 -

정 준 식**

차 례

- | | |
|----------------------------|----------------------------|
| I. 서론 | IV. 소설사적 맥락에서 본 <김희경전>의 위상 |
| II. 남장결연담의 연원과 변용양상 | V. 결론 |
| III.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남장결연담 | |

I. 서론

<육미당기>는 서유영이 1863년에 창작한 한문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삼한습유>·<옥수기>·<옥루몽> 등과 함께 19세기 사대부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란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¹⁾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 중에서도 <육미당기>의 소재원에 관한 논의가 가장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6-332-A00169).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그간의 연구 성과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장효현, 「육미당기」,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624-631쪽; 심치열, 「<육미당기>의 선행 연구 검토」,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1371-1392쪽.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²⁾ 그 결과를 정리하면, <육미당기>는 <적성의전>의 탐색담 구조를 외피로 삼고 <하진양문록>의 결연담·영웅담 구조를 내화로 삼는 한편 <숙향전>·<옥루몽>·<삼한습유> 등에서 여러 모티프를 변용하여 창작된 작품인 것으로 요약된다. 필자는 기존 논의에서 거론된 작품들 중에서도 <적성의전>·<하진양문록>이 <육미당기>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간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육미당기>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자결연담’에 관해서는 아직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육미당기>에는 작가의 ‘小序’가 첨부된바 이를 통해 서유영의 소설에 대한 인식과 <육미당기>의 창작배경을 기능해볼 수 있다. 서유영은 ‘小序’에서 이웃집의 “稗官諺書”를 여러 종 빌려와 사람을 시켜 읽게 하여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소설이 주는 감동력에 촉발되어 여러 책을 절충하고 신어를 보태어 “傳奇”를 만들었다고 했다.³⁾ 그가 사람을 시켜 읽게 했다는 “稗官諺書”는 국문소설이며, 그 내용은 “남녀의 혼인에서 시작하여 규방의 행적을 두루 서술”한 것이다. 국문소설 중 남녀의 혼인과 규방의 행적을 서술한 작품은 17세기 후반에 태동되어 18세기부터 본격화된 국문 장편소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육미당기>가 <적성의전>의 구조를 외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그가 접한 소설 모두를 국문 장편소설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문 장편소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리란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육미당기>의 창작배경에 관한 논의는 이런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심치열, 앞의 논문, 1378-1381쪽.

3) 가람본 <六美堂記> 小序, “…聞隣家多藏稗官諺書 借來數三種 使人讀而聽之 蓋一篇宗旨 始於男女婚媾 而歷絃閨房行蹟 互有異同 皆架虛鑿空 支離煩瑣 固無足取 然至若人情物態 善於模寫 凡悲歡得失之際 賢愚善惡之分 往往有令人觀感處…余迺折衷諸家 祛其支離煩瑣 間或補之以新語 合爲一篇傳奇 分作三卷 命篇曰六美堂記”(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 아세아문화사, 1980, 305쪽).

그렇다면 서유영이 <육미당기>의 창작에 비중 있게 활용한 국문 장편소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었을까? 필자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하진양문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육미당기>의 여주인공인 백운영의 일대기를 구축하고 있는 서사가 전대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⁴⁾ 그러나 여성영웅소설 중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이 <육미당기>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하진양문록>과 <육미당기>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제기한 김민조의 논의⁵⁾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는 하재옥과 백운영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진양문록>과 <육미당기>를 면밀히 대조하여 두 작품에서 일치되는 화소가 20개에 이름을 밝혔다.⁶⁾ 이를 근거로 그는 <하진양문록>이 “하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영웅소설과는 달리 상층사대부기에서 향유되던 장편소설의 외형”(96쪽)을 지녔기 때문에 사대부인 서유영이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육미당기>의 창작과정에 <하진양문록>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충분”(97쪽)하다고 보았다.

김민조의 이러한 주장은 <육미당기>의 작가가 접한 여성영웅소설이 19세기 이래 본격적으로 출현한 통속적 여성영웅소설이 아니라 18세기

4) 이강옥, 「육미당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821-836쪽. 이강옥은 이 논문에서 “<육미당기>는 <현우경>→<적성의전>의 서사적 골격을 수용한 부분이다 소위 ‘여성영웅소설’의 골격을 수용한 부분이 덧붙여져 있다. 후자의 골격은 주로 소신을 구해 준 백문현의 딸 백운영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개된다.”(831쪽)라고 하였다.

5)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석사논문』, 1999, 92-106쪽

6) ①擇婿 화소, ②定婚 화소, ③道人の 救人 화소, ④男服 改着 화소, ⑤同居 화소, ⑥속이고 속기 화소, ⑦慰靈祭 화소, ⑧壯元及第 화소, ⑨駙馬 다시 정하기 화소, ⑩軍談 화소, ⑪정체 노출 화소, ⑫여주인공의 辭職疏 화소, ⑬仙界 再歸 화소, ⑭남주인공의 相思 致死 화소, ⑮肖像畫 화소, ⑯여주인공의 再還世 화소, ⑰후궁의 왕후 謀害 화소, ⑱皇家와의 結緣 화소, ⑲正夫人 화소, ⑳여충제 화소(김민조, 앞의 논문, 92-94쪽).

후반부터 상층사대부가에서 필사본으로 전승되던 장편 여성영웅소설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김희경전> 등의 장편 여성영웅소설이 18세기 말에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⁷⁾ 이렇게 볼 때, <육미당기> ‘小序’에서 서유영이 직접 접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남녀의 혼인에서 시작하여 규방의 행적을 두루 서술”한 작품은 국문 장편소설 중에서도 장편 여성영웅소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일종인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남장결연담을 대비적으로 검토하여 두 작품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육미당기>의 새로운 소재원을 밝히고 <김희경전>의 소설사적 위상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II. 남장결연담의 연원과 변용양상

<김희경전>과 <육미당기>를 대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작품의 친연성을 보증해주는 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단서는 두 작품의 유형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김희경전>과 <육미당기>는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사실 장편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학계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여성영웅소설에서 장편과 단편을 구별해서 논의해야 함은 물론, 장편과 단편이 서로 어떤 영향관계에 놓여있는가를 명백히 가려내야 여성영웅소설의 전개과정을 온전히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7) 김민조, 앞의 논문, 26-29쪽;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219-222쪽;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04.

여성영웅소설 중 필사본·방각본·활자본 이본이 다수 존재하고 독자들에게 널리 읽힌 작품은 단편 여성영웅소설이며, 그 분량은 대략 100장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장편 여성영웅소설은 주로 필사본으로만 전승되다가 후대에 와서 몇몇 작품이 활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그 분량은 대략 백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을 넘나든다. 단편 여성영웅소설과 장편 여성영웅소설은 단순히 분량 면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가층, 독자층, 향유방식, 주제와 미학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⁸⁾

<김희경전>과 <육미당기>는 공히 장편의 분량을 지니고 있고 주로 필사본으로 전승되다가 후대에 와서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두 작품은 남녀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보다 한 남성 대 여러 여성의 거듭되는 결연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어 일부다처의 화려한 공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점은 대다수 단편 여성영웅소설이 남녀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을 통속적으로 그려내는 데 큰 비중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남녀의 결연을 등한시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를 근거로 <김희경전>·<육미당기>를 <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과 함께 장편 여성영웅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장편 여성영웅소설 중 <하진양문록>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에는 남장결연담이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남장한 여주인공이 종로에서 만난 여인과 부득이 정혼하였다가 뒷날 두 사람이 함께 한 남성과 혼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남장결연담은 17세기 이래 국내소설에 관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이색적인 결연담의 연원을 《今古奇觀》 소재 <女秀才移花接木>에서 찾기도 하지만,⁹⁾ 국내소설에 수용된 남장결연담은 17세기 후반부터 국내에 유입된 청대 재자가인소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⁰⁾ 청대 재자가인소설에는 남장한 가인이

8) 장편 여성영웅소설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 별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9) 신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미친 명대단편소설의 영향」, 서울대 박사논문, 1985, 113-148쪽.

다른 가인과 친척 혹은 친구 사이가 되어 함께 한 재자에게 시집가기로 결의한다거나 일시적으로 결혼하여 가짜 부부로 행세하다가 재자에게 함께 시집간다는 모티프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¹¹⁾ 이들 중에서 특히 <옥교리>와 국내소설 <창선감의록>이 강한 친연성을 보이므로 둘 사이의 영향관계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즉 <옥교리>에서 ‘남장한 노몽리가 우연히 소우백을 보고 스스로 구혼하는 장면’이 <창선감의록>에는 ‘남장한 진채경이 자신의 정혼 상대인 윤여옥으로 가장하여 백경의 누이와 윤여옥의 혼약을 맺어주는 것’으로 변용되어 있다는 것이다.¹²⁾

그런데 국내소설에 형상화된 남장결연담은 한결같지 않아서 단지 중국소설의 영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청대 재자가 인소설에 연원을 둔 남장결연담이 국내소설에 두 가지 방식으로 변용되었으리라 추정한다. 하나는 <홍백화전>·<창선감의록>·<일락정기>·<낙동야언> 등에 나타나는 남장결연담이다. 여기에는 남장한 여주인공이 환로에 오르고 전쟁을 수행하는 등의 영웅적 활약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남장 여성은 애정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그 밖의 대사회적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작품들은 대체로 청대 재자가인소설의 성향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다. 다른 하나는 <김희경전>·<육미당기>·<부장양문록>·<이대봉전>·<양주봉전>·<정비전> 등에 나타나는 남장결연담이다. 여기서는 남장한 여주인공이 애정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소극적인 반면 환로에 오른 뒤 전쟁에 참여하여 대공을 세우는 등의 영웅적 활약

10) 최수경, 「청대 재자가인소설의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1, 258-276 ;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보고사, 2006, 139-142쪽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2005, 145-158쪽.

11) <옥교리>·<주춘원>·<백규지>·<공련주>·<생화몽> 등은 전자에 해당되며, <린야보>·<봉황지>·<춘류앵>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최수경, 앞의 논문, 261쪽.

12) 정길수, 앞의 책, 같은 곳.

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런 작품들은 대체로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고 있다.¹³⁾

<홍백화전>류의 남장결연담은 <홍백화전>·<창선감의록>에서 비롯되어¹⁴⁾ 후대소설에 지속적으로 변주되었다. 그런데 <홍백화전>의 남장결연담과 <창선감의록>·<일락정기>·<낙동야언>의 그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홍백화전>의 남장결연담에는 결연 당사자인 가인 1과¹⁵⁾ 가인 2의 관계가 균형과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작품에는 그 균형이 파괴되어 가인 1에 비해 가인 2의 비중이 눈에 띄게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재자가인소설이 조선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도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홍백화전>은 중국 재자가인소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균형의 미학을 그대로 수용한 반면,¹⁶⁾ 후대 작품들은 오히려 이러한 모작의 혐의를 벗기 위해 재자가인소설의 남장결연담을 크게 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처럼 후대로 갈수록 가인 2의 작품 내적 비중이 약화된 데에는 일부다처에 대한 후대 작가 혹은 독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경전>류의 남장결연담은 <김희경전>·<부장양문록>에서 비롯되어¹⁷⁾ 후대소설에 지속적으로 변주되었다. 이들 작품에 형상화된 남장결연담은 가인 1이 '수화-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과정을

13)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04.

14) <홍백화전>과 <창선감의록>의 선후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두 작품이 17세기 말에 창작되었다고 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홍백화전>의 경우 조선의 재자가인소설로 논의될 정도로 청대 재자가인소설을 별다른 변용 없이 모작한 흔적이 강하다. 정길수, 앞의 논문, 158쪽.

15) 가인 1은 흔히 작품 속의 여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다.

16) 최수경, 앞의 논문, 263쪽.

17) <김희경전>·<부장양문록>은 18세기 말에 형성된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작품 모두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면모를 지니고 있고, 작품 내에서 남장결연담의 비중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보인다.

거친다는 점에서 강한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신양명구조가 가인 1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들을 여성영웅소설로 다루어 온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김희경전>·<육미당기>·<부장양문록>의 남장결연담과 <이대봉전>·<양주봉전>·<정비전>의 그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감지된다. 즉 <김희경전>·<육미당기>·<부장양문록>의 남장결연담은 그 자체로 독립된 서사를 이루면서 가인 1과 가인 2의 관계가 균형과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대봉전>·<양주봉전>·<정비전> 등의 남장결연담은 가인 1에 비해 가인 2의 비중이 현저히 약화되어 단지 주변 인물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후대로 갈수록 가인 2의 작품 내적 비중이 약화된 것 또한 일부다처에 대한 후대 작가 혹은 독자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홍백화전>류와 <김희경전>류의 남장결연담 가운데 국내소설에 보다 관습적으로 활용된 것은 <김희경전>류의 남장결연담이다. 특히 <김희경전>은 여성영웅소설에 남장결연담을 도입한 첫 작품으로 파악되므로,¹⁸⁾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앞서 언급한 <홍백화전>류의 작품에는 청대 재자가인소설에 빈번히 활용된 남장결연담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다. 이에 비해 <김희경전>의 남장결연담은 <홍백화전>류의 남장결연담을 변용하되 서사의 확장을 통해 새롭게 창안한 것이기 때문에 청대 재자가인소설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는 가인 1의 영웅적 활약상을 크게 부각하고 가인 2의 작중 역할을 확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성영웅소설만의 독특한 남장결연담이 창안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희경전>에서 창안된 남장결연담은 후대 소설에 그대로 답

18) <김희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에 형상화된 여장결연담·남장결연담·부마간택담 등은 여성영웅소설 중 가장 먼저 창안된 것으로써 후대 여성영웅소설에까지 지속적으로 변용된 모티프이다.

습되지 않고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주된다. 하나는 가인 2의 작중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가인 2의 작중 역할이 대폭 축소되는 쪽이다. <김희경전>→<육미당기>로의 이행은 전자에 해당되고, <김희경전>→<이대봉전>으로의 이행은 후자에 해당된다. <육미당기>가 장편 여성영웅소설이고 <이대봉전>이 단편 여성영웅소설임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변화는 여성영웅소설이 장편과 단편으로 이원화되면서 나타나게 된 자연스런 결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이 남장결연담은 중국 재자가인소설에 연원을 둔 것으로서, 이것이 국내소설에 변용되는 과정에서 <홍백화전>류와 <김희경전>류의 남장결연담이 각기 다르게 창안된 것이다. 특히 <김희경전>의 남장결연담은 장편과 단편의 여성영웅소설에 서로 다르게 변주되면서 하나의 관습화된 모티프로 자리하게 되었으니, <김희경전>과 <육미당기>가 장편 여성영웅소설로서 상호 유사성을 지니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Ⅲ.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남장결연담

지금까지 <김희경전>과 <육미당기>를 대비적으로 검토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대다수 연구자들이 두 작품 사이에 뚜렷한 유사성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 작품은 여성영웅소설에 함께 편입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두 작품이 장편의 분량을 지니고 있고 남장결연담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었던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그간 <김희경전>에 관한 논의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후대에 축약된 활자본만을 거둬 텍스트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김희경전>에 장편과 단편의 이본이 공존하고 있고, 이들 중 장편의

이본이 원본에 가까운 이본이란 사실은 최근에 와서야 확인되었다.¹⁹⁾ 정준식의 논의로 <김희경전>이 정명기본 계열→국충본 계열→성대본 계열로 이행되어 왔음은 물론 장편에서 단편으로의 축약이 성대본 계열에 와서 처음 나타난 현상임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김희경전>의 이본에 장편과 단편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앞서 검토된바 <김희경전>의 남장결연담이 장편 이본에는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데 단편 이본에는 그 편린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희경전>에 관한 그간의 논의에서 남장결연담이 완벽하게 형상화된 장편의 이본이 텍스트로 활용되었다면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유사성이 그리 쉽게 간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희경전>은 ‘영웅서사’와 ‘결연서사’가 결합된 작품이다. 창작 당시 이 작품은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차례로 인연을 맺는 과정을 편력구도에 입각하여 장황하게 그려냄으로써 결연서사가 영웅서사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가부장제에 기반 한 일부다처의 화려한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통속적 여성영웅소설이 성행하자 이들의 장르관습에 합치시킨 새로운 축약본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성대본 <김상서전>이 바로 그것이다. 그에 따라 결연서사와 영웅서사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김희경전>은 통속적 여성영웅소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작품이 되고 말았다. 그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논의 대상으로 삼은 활자본 <김희경전>·<여자충효록>은 바로 축약된 성대본 <김상서전>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승한 것이다.²¹⁾

19)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237-278쪽.

20) 후반부가 생략된 가장 이른 사기의 이본인 성대본 <김상서전>이 1873년에 필사된 사실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1) 활자본으로 간행된 이본으로는 <김희경전>·<여중호결>과 <여자충효록>·<쌍문충효록>이 있다. 그런데 앞의 두 이본 및 뒤의 두 이본은 각기 표제만 다르고 내용은 서로 같다. 그러므로 사실상 활자본은 4종이 아니라 2종으로 보아

물론 <김희경전>의 이본이 정명기본 계열→국중본 계열→성대본 계열로 전개되었다고 해서 앞선 계열이 후대의 계열에 밀려 곧바로 소멸된 것은 아니다. 후반부의 남장결연담을 완벽하게 갖춘 정명기본 계열이 1815년에서 1909년까지 지속적으로 필사된 사실을 통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²²⁾ 이러한 사실은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원전의 내용을 충실히 지니고 있는 정명기본 계열이 1863년에 <육미당기>를 창작한 서유영에게도 직접 수용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육미당기>²³⁾ 제12회에서 제15회까지 핵심서사를 이루고 있는 남장결연담이 <김희경전> 후반부의 남장결연담에 근원을 둔 것이리라 추정한다. 두 작품은 공히 ‘여-여의 정혼’이 ‘남-여의 결혼’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적지 않은 지면을 통해 독립된 서사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작품의 남장결연담을 대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김희경전>의 해당 부분을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소저가 장설빙과 정혼하다.
- ② 이소저가 장설빙과 이별하다.
- ③ 장설빙이 과거급제 후 이영의 빈소에 조문하다.
- ④ 장설빙이 이소저와 훗날을 기약하고 떠나다.
- ⑤ 이소저가 남장하고 장설빙을 찾아 경성으로 가다.
- ⑥ 이소저가 경성에서 장설빙의 정체를 알고 실망하다.
- ⑦ 이소저가 김희경의 눈에 들어 부마궁으로 함께 가다.

야 한다. 먼저 간행된 이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김희경전>과 <여자충효록>이 활자본을 대표하는 이본인 셈이다. <김희경전>은 성대본 <김상서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고, <여자충효록>은 성대본 <김상서전>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부분적으로 변개를 가한 것이다.

22)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초기 이본에 해당되는 정명기본 계열은 김동욱본 F(1815)→정명기본 A(1842)→정명기본 B(1850)→국민대본(1883)→김동욱본 G(1909)의 계보를 이으며 전승되어 왔다. 정준식, 앞의 논문, 260-267쪽.

23) 본고에서 활용한 <육미당기>는 가람문고본이다. 여기서는 장효현 역주, 『육미당기』(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8)를 참고했다. 앞으로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이 책의 쪽수를 따르기로 한다.

- ⑧ 이소저가 이위로 변성명하고 부마궁에서 지내다.
- ⑨ 이소저가 김희경과 함께 중남산에 갔다가 금낭을 잃어버리다.
- ⑩ 이소저가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몰래 부마궁을 빠져나오다.
- ⑪ 장설빙이 금낭 속의 유언을 통해 이소저의 정체를 의심하다.
- ⑫ 이소저가 산에서 남두노인성으로부터 환약과 부적을 얻다.
- ⑬ 이소저가 급사한 소참정 부인을 환약과 부적으로 살려내다.
- ⑭ 장설빙이 이소저와 대면한 자리에서 이소저의 정체를 알다.
- ⑮ 소참정 부인이 이소저를 양녀로 삼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다.
- ⑯ 이소저의 시비 설앵이 이소저의 장래를 위해 장설빙과 상의하다.
- ⑰ 영월공주가 김희경과 이소저의 혼인을 천자에게 청하다.
- ⑱ 천자가 이소저를 김희경의 넷째 부인으로 삼게 하다.
- ⑲ 이소저가 김희경과 혼례를 올린다.

위에 제시된 것은 <김희경전>의 남장결연담을 구성하는 단락들이다. 물론 남장결연담은 <이대봉전>·<양주봉전>·<정비전> 등의 단편 여성영웅소설에도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는 <김희경전>에 설정된 단락 ①~⑱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세 작품에 수용된 남장결연담은 <김희경전>의 그것에 비해 단편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의 단락 중 ①②와 ⑰⑱⑲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세 작품에 남장결연담의 편린만 남게 된 까닭은, 이들이 <김희경전>의 해당 대목을 변용하면서 이소저의 남장 행적을 그려낸 후반부를 통째로 생략했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작품은 <이대봉전>이다. 사실 <이대봉전>과 <김희경전>은 남녀주인공이 동일한 사주를 띠고 출생한 점, 여주인공의 남장결연담, 환로에 올라 무공을 세운 점, 부마로 간택되어 신분을 밝힌 점, 천자의 주혼으로 남주인공과 결혼한 점 등에서 강한 친연성을 보이므로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이대봉전>이 <김희경전>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 창작된 작품임을 말해 준다. 이렇게 볼 때, 여성영웅소설만의 독특한 남장결연담은 <김희경전>에서 처음 마련된 이래 <이대봉전>에서

대폭 축소되고, 그것이 다시 후대소설에 거듭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축소된 남장결연담은 후대의 단편 여성영웅소설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관습화된 모티프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육미당기>의 남장결연담은 이들과 달리 오히려 <김희경전>의 해당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변용되었다. 위의 줄거리에서 <육미당기>에도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는 단락은 ①②, ⑤~⑪, ⑭⑮, ⑰~⑲이다. 이들은 모두 남장결연담을 구성하는 핵심단락인데, <김희경전>의 장설빙·이소저·김희경이 각기 <육미당기>의 백운영·이소저·설서란으로 바뀐 것 외에 이들을 둘러싼 구체적인 서사내용은 너무도 흡사하다. 이 단락들은 고전소설을 통틀어 두 작품에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두 작품의 유사성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김희경전>의 남장결연담이 <육미당기>의 해당 부분에 변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물론 두 작품의 남장결연담은 부분적인 차이점도 보인다. <육미당기>의 남장결연담에는 앞서 제시한 <김희경전>의 단락 ③④, ⑫⑬, ⑯이 생략되었다. ③④는 장설빙이 과거에 급제한 뒤 이소저의 집으로 가서 후일을 약속하는 대목인데, 이 대목이 없어도 서사전개에는 단절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단락 ⑫⑬은 이소저와 장설빙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장치인데, <육미당기>는 이 부분을 생략하면서 단락 ⑩⑪⑭도 함께 축약하여 설서란이 부마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백운영에게 정체가 노출되는 것으로 번개시켜 놓았다. <김희경전>에서 장설빙과 이소저의 만남이 '남두노인성'이라는 초월계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바, <육미당기>의 작가는 이를 생략하여 백운영과 설서란의 만남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고자 한 것이다. 단락 ⑯의 생략도 단락 ③④와 마찬가지로 서사전개에 단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축약의

결과이다.

그런데 두 작품의 남장결연담이 보이는 두드러진 차이는 <김희경전>에 없던 사건이 <육미당기>에 새로 설정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새로운 사건은 ‘왕파의 납치(뇌파의 구원)-뇌파 아들의 겁탈위협(묘정의 구원)- 화주 소년배들의 희롱(이면의 구원)-호삼랑의 겁탈위협(김소선의 구원)’²⁴⁾으로 이어지면서 설서란의 세속적 시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김희경전>의 이소저는 집을 떠난 이후부터 김희경과 혼인하기까지 한 번도 외부의 위협에 직면한 적이 없다. 때문에 그의 여정은 오직 장설빙과의 재회 및 김희경과의 결연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될 뿐이다. 이에 비해 <육미당기>의 설서란은 낯선 땅에서 처녀성 상실의 위기에 거듭 노출됨으로써 방향감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결연의 완성이라는 독자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별도로 조선후기 여성들의 현실적인 절곡을 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의 직접적인 수순관계는 분명해 보인다. <육미당기> 제1회에서 제11회에 이르기까지 설서란의 존재는 극히 미약할 뿐이다. 그는 처음 부친을 매개로 백운영과 정혼한 이후²⁵⁾ 좀처럼 종적을 드러내지 않다가 설서란과 김소선의 결연을 핵심서사로 그려낸 제12회에 와서야 새로운 중심인물로 부상하게 된다. 이것은 <김희경전>의 전반부에서 이소저가 부친을 매개로 장설빙과 정혼한 이후²⁶⁾ 별다른 종적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소저와 김희경의 결연을 핵심서사로 그려낸 후반부에 와서야 새로운 중심인물로 부상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리고 <김희경전>에서 김희경-최소저, 김희경-장설빙의 결연이 차례로 완성된 시점에서 김희경-이소저의 결연담

24) 최경환, 「<육미당기>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7, 108쪽.

25) 장효현 역주, <육미당기>, 『한국고전문학전집』 1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8, 49-58쪽.

26) 김동욱본 A <김희경전>, 36a-44a.

이 시작되듯 <육미당기> 또한 김소선-백운영, 김소선-육성공주의 결연이 차례로 완성된 시점에서 김소선-설서란의 결연담이 시작되고 있다. 나아가 <김희경전>의 세 결연담 중에서 김희경-장설빙, 김희경-이소저의 결연담이 중심을 이루고 있듯 <육미당기>에서도 김소선-백운영, 김소선-설서란의 결연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수수관계가 단지 남장결연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일단 '백운영-설서란'의 정혼에서 시작되어 '김소선-설서란'의 결혼으로 완결되는 <육미당기>의 남장결연담이 <김희경전>의 해당 부분을 변용하면서 이루어진 사실만 확인해 두기로 한다.

IV. 소설사적 맥락에서 본 <김희경전>의 위상

<김희경전>은 18세기 말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여성영웅소설 중 18세기 말 이전에 창작된 작품이 <설저전>·<이현경전> 외에 달리 거론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김희경전>은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 장편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김희경전>의 창작시기를 18세기 말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²⁸⁾ 만약 그렇다면 이들 장편 여성영웅소설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 사이에 창작된 <설저전>·<이현경전>과 19세기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다수 단편 여성영웅

27)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04.

28)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석사논문, 1999, 82-91쪽;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 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219-222쪽;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04.

소설의 사이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곧 여성영웅소설의 전개과정에서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역할이 만만치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여기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김희경전>의 소설사적 위상을 몇 가지 짚어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김희경전>은 여성영웅소설이 모색되던 시기의 작품인 <설저전>·<이현경전>을 계승하여 여성영웅소설만의 독특한 장르관습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중핵을 이루는 ‘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라는 서사모형은 맨 처음 <설저전>에서 모색되고 <이현경전>에서 마련되었다. 주지하듯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는 ‘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입신양명구조와 ‘정혼-이별-혼인’의 과정을 보여주는 남녀이합구조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물론 입신양명구조와 남녀이합구조의 자연스런 결합을 매개하는 것은 여주인공이 행하는 (여)-(남)-(여)로의 신분변모 과정이다.²⁹⁾ 이처럼 여성영웅소설은 남장모티프를 매개로 입신양명구조와 남녀이합구조가 교묘히 결합되면서 보다 확대된 서사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초기 여성영웅소설인 <설저전>·<이현경전>에는 이러한 서사구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 <설저전>에는 입신양명구조를 이루는 단락 중 ‘수학-과거급제’만 나와 있고 남녀이합구조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이현경전>에는 입신양명구조를 이루는 ‘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단락이 전반부에 구비되어 있고 남녀이합구조는 ‘결혼-이별-재결합’의 형태로 후반부에 별도로 구비되어 있

29) 민찬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를 ‘영웅의 일생 구조’와 ‘남녀이합구조’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남장모티프가 이 둘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았다. ‘입신양명구조’는 크게 보아 ‘영웅의 일생 구조’에 수렴되는 것이지만, 여주인공이 남장 상태로 있을 때 거치게 되는 ‘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의 과정만을 특화시켜 부를 때는 ‘입신양명구조’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논문, 1986, 11-16쪽.

다. 이에 따라 이 작품은 입신양명구조와 남녀이합구조가 남장모티프를 매개로 긴밀히 결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현경전>에서 마련된 입신양명구조는 후대 여성영웅소설에 거듭 변용된 반면, 남녀이합구조는 <홍계월전>에만 제한적으로 변용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후대 여성영웅소설에 지속적으로 변용된 ‘정혼-이별-혼인’의 남녀이합구조는 어느 작품에서 처음으로 마련되었을까. 필자는 이를 <김희경전>으로 보고자 한다. <김희경전>은 <이현경전>의 입신양명구조를 변용하는 한편, ‘정혼-이별-혼인’의 과정을 거치는 남녀이합구조와 부마간택담을 독자적으로 창안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서사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마련된 ‘출생-정혼-이별-남장-고난-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부마간택-신분노출-혼인’이라는 안정된 서사모형은 <이대봉전>·<정수정전> 등의 후대소설에도 지속적으로 변용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입신양명구조와 남녀이합구조가 남장모티프를 매개로 교묘히 결합된 여성영웅소설만의 독특한 장르관습이 확립된 것이다.

둘째, <김희경전>은 전·후대 소설과의 관련이 명확하여 전대 소설로부터 물려받은 요소와 후대 소설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김희경전>은 <홍백화전>의 남장결연담, <구운몽>의 여장결연담, <이현경전>의 입신양명담을 변용하고 남녀이합구조를 새로 창안하면서 이루어진 작품이다.³⁰⁾ 여성영웅소설 중 이처럼 형성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이 달리 없고 이 작품의 창작시기가 18세기 말로 추정되므로, <김희경전>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는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적지 않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김희경전>의 남장결연담은 후대 여성영웅소설에 두 가지 방식으로 변용된다. 이 가운데 <육미당기>에 확대 변용된 것은 장편 여성영웅

30)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04.

소설 간의 수수관계를 확인시켜 주며, <이대봉전>·<양주봉전>·<정비전> 등에 축소 변용된 것은 장편 여성영웅소설이 단편 여성영웅소설 과도 교섭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더욱이 <김희경전>은 후대로 전승되면서 자체 변화를 겪기도 한바, 장편 이본이 단편 이본으로 줄어들면서 남장결연담도 대폭 축소되어 <이대봉전>·<양주봉전>·<정비전> 등의 그것처럼 편린만 남게 되었다.

셋째, <김희경전>은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장편 여성영웅소설이 단편 여성영웅소설과는 다른 구조적 원리와 미학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김희경전>이 여성영웅소설의 일종으로 논의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작품이 장편이란 사실에 주목한 연구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 원인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후대에 이르러 축약된 단편의 이본만을 거듭 논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필사본 10여 종이 검토되면서 장편 이본이 알려지게 되었고,³¹⁾ 이들 필사본이 정명기본 계열→국중본 계열→성대본 계열로 전승되던 중 성대본 계열에 와서 장편이 단편으로 축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³²⁾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김희경전>이 애초에 장편으로 창작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장편으로 창작된 여성영웅소설은 대체로 한 남성과 두 여성의 결연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어 가부장제에 기반 한 일부다처의 화려한 공존을 모색하고 있으니, <김희경전>·<부장양문록>·<육미당기> 등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작품 성향은 원래 청대 재자가인소설이 지닌 일반적 특징인바, 이것이 국내소설 <홍백화전>에 변용된 이래 후대의 여러 작품에도 다양하게 변주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편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김희경전>·<부장양문록>·<육미당기>에는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는 ‘영웅형 여성’과 결연의 완성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는 ‘가인형 여성’

31)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6, 1-69쪽.

32)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04.

이 공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세 작품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영웅형 여성-가인형 여성’의 결연담이 ‘남주인공-영웅형 여성’의 결연담과 교차되다가 나중에 남주인공을 중심으로 영웅형 여성과 가인형 여성이 한 공간에 모여면서 이들 작품의 최종 목표인 한 남성 대 두 여성의 결연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물론 이들 작품에는 영웅형 여성을 중심으로 한 군담도 비중 있게 그려져 있다. <김희경전>의 장설빙, <부장양문록>의 장수정금, <육미당기>의 백운영은 모두 전장에서 남주인공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위업을 과시한다. 장설빙·장수정금·백운영은 모두 각 작품의 여주인공으로서 ‘출생-정혼-이별-남장-수학-과거급제-출정입공-지위극대화-부마간택-신분노출-결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간의 논의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을 여성영웅소설로 규정하게 된 것도 세 작품이 이러한 서사모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편 여성영웅소설이 이러한 서사모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영웅서사가 아닌 결연서사이다. <김희경전>은 ‘김희경-장설빙·이소저’의 결연과정을, <부장양문록>은 ‘부계-장수정금·윤소저’의 결연과정을, <육미당기>는 ‘김소선-백운영·설서란’의 결연과정을 그려내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세 작품의 영웅형 여성(장설빙·장수정금·백운영)과 가인형 여성(이소저·윤소저·설서란)은 함께 한 남성을 섬기지만 전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영웅형 여성은 가인형 여성과 ‘여-여 정혼’의 관계를 지속하다가 남주인공과 혼인한 후에 가인형 여성을 남편에게 천거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세 작품은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남녀의 상호존중과 신의에 바탕을 둔 일부다처의 화락한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단편 여성영웅소설과는 차별화된 장편 여성영웅소설만의 미학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김희경전>은 이러한 미학을 지닌 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중심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V. 결론

필자는 최근 <김희경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 글도 그 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90년대 초반에 장서각본 <금환기봉>을 처음 접한 이후로 <김희경전>이 <육미당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해왔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십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김희경전>과 <육미당기>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한 것일까? 이 글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어 그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담은 것이다.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희경전>이 여성영웅소설 중 장편의 분량을 지닌 작품이란 사실은 최근의 이본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이처럼 장편의 분량을 지닌 여성영웅소설에는 <김희경전> 외에도 <부장양문록>·<육미당기> 등이 있다. 세 작품은 모두 이색적인 남장결연담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유사성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김희경전>과 <육미당기>는 남장결연담을 구성하는 세부 단락까지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두 작품 간의 직접적인 수수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장결연담은 <옥교리>·<춘류앵> 등의 청대 재자가인소설에 연원을 둔 것이다. 이것이 <홍백화전>·<창선감의록> 등에 변용된 이래 국내소설에도 다양한 남장결연담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국내소설에 수용된 남장결연담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바 <홍백화전>류와 <김희경전>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김희경전>류의 남장결연담은 장편과 단편의 여성영웅소설에 서로 다르게 변주되면서 하나의 관습화된 모티프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남장결연담은 ‘여-여의 정혼’이 ‘남-여의 결혼’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독립된 서사로 치밀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강한 동질성을 지닌다.

이를 근거로 필자는 <육미당기>에 형상화된 ‘백운영-설서란의 결연담’이 <김희경전>에 형상화된 ‘장설빙-이소저의 결연담’을 변용하면서 창안된 것으로 보았다. 사실 <육미당기> 제1회에서 제11회에 이르기까지 설서란의 존재는 극히 미약할 뿐이다. 그는 처음 부친을 매개로 백운영과 정혼한 이후 좀처럼 종적을 드러내지 않다가 설서란과 김소선의 결연을 핵심서사로 그려낸 제12회에 와서야 새로운 중심인물로 부상하게 된다. 이것은 <김희경전>의 전반부에서 이소저가 부친을 매개로 장설빙과 정혼한 이후 별다른 종적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소저와 김희경의 결연을 핵심서사로 그려낸 후반부에 와서야 새로운 중심인물로 부상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리고 <김희경전>에서 김희경-최소저, 김희경-장설빙의 결연이 차례로 완성된 시점에서 김희경-이소저의 결연담이 시작되듯, <육미당기> 또한 김소선-백운영, 김소선-육성공주의 결연이 차례로 완성된 시점에서 김소선-설서란의 결연담이 시작되고 있다. 나아가 <김희경전>의 세 결연담 중에서 김희경-장설빙, 김희경-이소저의 결연담이 중심을 이루고 있듯 <육미당기>에서도 김소선-백운영, 김소선-이소저의 결연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상의 논의로 <김희경전>이 <육미당기>의 창작에 중요한 소재원이 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김희경전>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인 <설저전>·<이현경전>을 계승하여 여성영웅소설만의 독특한 장르관습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전대 소설로부터 물려받은 요소와 후대 소설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장편 여성영웅소설로서의 구조적 원리와 미학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작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김희경전, 육미당기, 남장결연담, 장편 여성영웅소설, 단편 여성영웅소설, 재자가인소설, 변용, 영향관계

참고문헌

- 가람본 <육미당기> :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1, 아세아문화사, 1980.
- 장효현 역주, 『육미당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8.
- 김동욱본 A <김희경전> : 필사본, 단국대 을곡도서관 소장.
- 김동욱본 F <김희경전> : 필사본, 단국대 을곡도서관 소장.
-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6, 1-69쪽.
-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석사논문, 1999, 82-91쪽.
-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보고서, 2006, 139-142쪽.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논문, 11-16쪽.
- 신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미친 명대단편소설의 영향」, 서울대 박사논문, 1985, 113-148쪽.
- 심치열, 「<육미당기>의 선행 연구 검토」, 『고소설연구』, 월인, 2002, 1378-1381쪽.
- 이강옥, 「육미당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821-836쪽.
- 장효현, 「육미당기」,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624-631쪽.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145-158쪽.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219-222쪽.
-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2007, 237-278쪽.
-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

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04.

최경환, 「<육미당기>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7,
108쪽.

최수경, 「청대 재자가인소설의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1.12, 1-261
쪽.

<Abstract>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Gimhuigyeongjeon and *Yukmidanggi*

- Based on the love stories of women disguised in men -

Jeong, Jun-Sik

Among the heroine novels, *Gimhuigyeongjeon*, *Bujangyangmunrok*, and *Yukmidanggi* share a strong similarity that all of them are characterized by unique love stories of women disguised in men. And of the three novels, *Gimhuigyeongjeon* and *Yukmidanggi* hold a common characteristic in the organizational details comprising of the love stories of women in men; thus, it is undoubtedly acceptable that the two works have some direct influential relationship.

The love stories of women in men owe their origin to the novels of wits and beauties in the period of Ching including *Okgyori* or *Chunryuaeng*. Various love stories of women in men have been used constantly in domestic novels as well since they were modified in *Honghwabaekjeon* or *Changseongamuirok*.

Particularly, *Gimhuigyeongjeon* and *Yukmidanggi* have a strong similarity on the point that both describe precisely with independent narration and the process of the 'woman and woman's betrothal's completion to the 'man and woman's betrothal'. From that, this article drew deduction that the 'love story of Baek, Un-yeong and Seol, Seo-ran' described in *Yukmidanggi* was created by modifying the 'love story of Jang, Seol-bing and Yi, So-jeo' in the latter part of

Gimhuiyeongjeon.

Key Words : *Gimhuiyeongjeon*, *Yukmidanggi*, a love story of a woman disguised in man, long heroine novels, short heroine novels, novels of wits and beauties, modification, influential relationship